

38년 맞는 오월... 초심으로 돌아가자



5월 어린이들의 추모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 둔 16일 추모객들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항쟁의 주역은 평범한 시민이자 우리의 이웃 민주의 열정·대동세상... 광주정신 되새겨야

김모씨의 사인은 M16총상이었다. 숨진 때와 장소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일원. 당시 그의 나이 21세, 사는 곳은 광주 방림2동. 직업은 직공(織工). 같은 날 숨진 또 다른 김모씨의 사인은 타박상. 나이는 65세. 사는 곳은 광주 월산 4동. 직업은 농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공개된 '광주 소요사태 사망자 조서(1980년)'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일련번호 1부터~164번까지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본적,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구분(사인)이 적혀있다. 사망자는 죄다 구두수선공, 직공, 미장공, 농업, 노동, 중학생, 전공, 공업, 재수생, 운전원, 무직, 주방장, 페인트공, 화물차 조수, 다방주방장, 기사, 자개공, 운전원, 상업, 점원들이다. 그들은 아무런 힘없는 평범한 시민이었고 우리의 이웃이었다.

그들은 그날 무엇을 위해 분연히 나섰

을까.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또 국민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정신의 발로였다. 자기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는 순수한 열정이었다.

또 다른 장면 하나. 5월 21일 집단발포 이후 계엄군이 밀려난 후 광주는 대동세상이었다. 양동시장 상인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배고픈 시민군을 먹였고, 경찰도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은 스스로가 치안을 담당했다. 범죄없는 광주가 실현되는 순간들이었다. 당시 광주는 시민 모두가 하나였고 서로를 지켰다.

다시 38년이 흘러 5월 그날이 왔다. 17일 도청 앞 금남로에는 5·18전야제를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민주화 항쟁의 현장이었던 그 자리에 시민들은 또다

시 모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도 5·18을 민주주의 역사 최고의 단계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군부의 가해자들은 한치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역사는 준엄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이 지나고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오월 광주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난 38년을 달려온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광주 정신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오월정신, 광주정신이 다시 부활해야 할 때가 왔다. 시민 스스로가 삶속에서 그날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한다. 오월은 투쟁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는 대동의 정신임을, 또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고,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의 정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울 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

5·18 38주년 기념식 18일 민주묘지서 열려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다. <관련기사 7면> 올해 주제는 5·18이 광주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평화의 역사, 민주주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18유공자와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기념식은 추모공연과 헌화분향,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추모공연에는 5·18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전옥주씨(본명 전춘심)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다. 또 1980년 5월18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행방불명된 이창현(당시 8세)군과 38년간 아들을 찾다던 아버지 이귀복씨의 사연이 시네라마(Cinerama) 형식으로 소개된다. 시네라마는 영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에 공연이 결

합된 형태로, 이귀복씨가 출연해 5·18 행불자 유가족의 아픔을 호소한다. 올해 기념식에는 ‘푸른 눈의 목격자’로 잘 알려진 독일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찰스 벡트 헨들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헨들리, 고(故) 아들 피터스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스, ‘2018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스리랑카 출신 난민다 마니타가 신부 등도 참석한다.

마사 헨들리 여사는 기념식에서 남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와 추모의 메시지 등을 전할 계획이다. 또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재주인공 고(故)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의 만남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역차별에는 고(故) 김경철씨의 모친 임근단씨,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부친 윤석동씨,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장기간 단식투쟁하다 사망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씨 등이 참여한다. /김홍희기자 kimyh@

北 “일방적 핵포기 강요 땀 북미정상회담 재고려할 것”

김계관 “리비아식 폐기는 망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5·18 계엄군 고백-20사단 사병 ▶6면
그림편지-뒤셀도르프 정광희 ▶18면
불운과 싸우는 KIA 투수 팻민 ▶20면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